

1920-30년대 번역 소설의 어휘 양상*

김 정 우
(경남대)

1. 머리말

본고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간행된 신문과 잡지에 실린 번역 소설을 대상으로, 번역문에 나타나는 번역 어휘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어휘를 번역하는 전반적인 태도와 그 결과로 선택된 구체적인 번역 어휘에 대한 고찰이 주된 내용이 된다. 이러한 논의는 번역학과 국어학이 만나는 학제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20세기 초반의 어휘 번역 양상을 밝히는 기술번역학¹⁾의 한 주제가 되며, 이차적으로는 20세기 초반의 국어 어휘 사용 양상을 다루는 국어어휘론²⁾의 한 주제가 된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 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 1) 기술번역학을 포함하는 번역학 전반의 체계에 대해서는 뎀Pym(1998:2)을 참고할 수 있다.
- 2) 아울러 여기 제시된 어휘 자료를 현재의 어휘와 비교하면, 형태와 의미의 측면에서 국어 어휘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간략한 해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번역이라는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1920년대와 1930년대라는 시간이 갖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음미도 간략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제3장과 제4장은 본고의 중심으로, 먼저 제3장에서는 어휘 번역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당시의 어휘 사용 양상을 공시적인 관점과 통시적인 관점에서 각각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한다.

2. 자료 소개/해제와 시대 배경 약해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1920년대와 1930년대 번역 소설의 목록과 출전은 다음과 같다.³⁾

2. 1. 1920년대 자료

(가) ‘상봉(相逢)’ : 포우 작, 김명순 역, 『개벽』29호, 1922년 10월.

이 작품은 에드거 앨런 포우(Edgar Allan Poe, 1809-1849)의 단편(“The Assigantion”)을 번역한 것인데, 번역자 김명순(1896-1951)은 1920년대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였던 신여성⁴⁾으로 알려져 있다.

(나) ‘흑묘물어(黑猫物語)’ : 포우 작, 역자 미상, 『시대일보』,

3) 제목을 비롯한 관련 서지 사항의 표기는 원문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따랐음을 밝혀 둔다. 그래서 ‘포우’나 ‘포’처럼 같은 작가가 달리 표기된 경우도 있다. 맞춤법 통일안이 1933년에 공포된 사실을 상기하면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4) 평양 출신으로 진명 여학교를 졸업한 후 1917년에 『청춘』지에 단편 ‘의문의 소녀’가 당선되어 문단에 진출했다. 그 후 시와 단편소설을 발표하면서 문단 생활을 하다가, 동경에서 사망했다. 김동인의 단편 ‘김연실전’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하 자료를 소개하는 본문에서는 작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을 최대한 간략하게 다루고, 기타 참고 내용은 각주에서 다루기로 한다.

1925.12.26-31.

이 작품도 포우의 단편("The Black Cat")을 번역한 것인데, 번역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발표지인 「시대일보」는 당시 「조선」이나 「동아일보」와 함께 3대 민간지로 꼽히던 일간신문이었다.⁵⁾

(다) ‘월자(月子)⁶⁾와 시계(時計)’ : 오헨리 작, 윤백남 역, 「동아일보」, 1926.1.9-14.

이 작품은 오헨리(O. Henry, 1862-1910)의 단편("The Gift of the Magi")을 번역한 것인데, 영화인으로 더욱 유명한 번역자 윤백남(1888-1954)은 소설가 겸 번역가로도 활동했다.⁷⁾

(라) ‘적사(赤死)의 가면(假面)’ : 알란 포오 작, 정인섭 역, 「해외문학」 1: 1, 1927.2.17.

이 작품은 포우의 단편("The Mask of the Red Death")을 번역한 것인데, 번역자 정인섭(1905-1983)은 정통 영문학자로 알려져 있다.⁸⁾

(마) ‘백만방 지폐(百萬磅紙幣)’ : 마-쿠-투-에-니 작, 이기영 역, 「조선지광」 77-78, 1928.3.1.-5.1.

이 작품은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의 단편("The \$1,000,000 Bank Note")을 번역한 것인데, 번역자 이기영(1895-1984)은 대표적인 경향파

-
- 5) 이 신문의 전신은 주간지 『동명』인데, 경영과 집필에 참여했던 인물의 면면을 보면 최남선, 안재홍, 염상섭, 홍명희 등 민족 진영의 인사들이 다수 보인다.
- 6) ‘월자’란 ‘예전에, 여자들이 머리술이 많아 보이라고 덧넣었던 판 머리’(『표준국어대사전』)를 가리킨다. 다른 말로 ‘다리’라고 하는데 방언형 ‘달비’도 있다.
- 7) 윤백남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동아일보사에 입사하여 「수호전」을 번역하여 연재하기도 했다.
- 8) 정인섭은 경남 울산 출신으로 <외국문학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작가로 알려져 있다.)

(바) ‘빵장사 마루사’ : 오헨리 작, 土偶 역, 『학생』 1: 2, 1929.4.1.

이 작품은 오헨리의 단편(“Witches' Loaves”)을 번역한 것인데, 번역자 토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사) ‘소인국 여행기(小人國旅行記)’ : 스위프트 작, 이은상 역, 『신생』 3: 8-22, 1930.7.1.

이 작품은 아일랜드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 1667-1745)¹⁰⁾의 장편(*Gulliver's Travel*)을 번역한 것으로, 번역자 이은상(1903-1982)은 시조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2. 2. 1930년대 자료

(가) ‘하로스밤’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작, 이하운 역, 『조선일보』, 1931.5.22-6.6.

이 작품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 스티븐슨(1850-1894)의 단편¹¹⁾을 번역한 것인데, 번역자 이하운(1906-1974)은 시인이자 기자, 교수로 활동했다.

(나) ‘하박사의 실험’ : 호손 작, 이하운 역, 『조선일보』, 1931.6.7-16.

이 작품은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1804-1864)의 단편(“Dr. Heidegger's Experiment”)을 번역한 것인데, 번역자는 위와 같은 이하운으로 되어 있다.

9) 이기영은 동경에서 영어학교(세이소쿠)를 다니다가 중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스위프트는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으로 풍자 작가로 활동하는 한편, 정치평론가와 성직자로도 큰 흔적을 남겼다.

11) 이 작품은 원전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본고의 일차적인 목표가 번역문의 어휘 양상에 맞춰져 있다 보니 관련 용례의 원문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점을 본고의 한계로 인정한다.

(다) ‘도살자(屠殺者)’ : 헤밍웨이 작, 몽보(夢甫) 역, 『동아일보』, 1931. 7.19-31.

이 작품은 미국의 소설가 헤밍웨이(Ernest Miller Hemingway, 1899-1961)의 단편(“The Killers”)을 번역한 것인데, 번역자로 표기된 ‘몽보’는 박태원의 필명이다.

(라) ‘하숙옥(下宿屋)’ : 제임스 조이스 작, 최정우 역, 문예월간 2:2, 1932.3.1.

이 작품은 아일랜드의 작가 조이스(Joyce, James Augustine Aloysius, 1882-1941)의 단편¹²⁾을 번역한 것인데, 번역자 최정우(1907-1968)는 정통 영문학자¹³⁾로 알려져 있다.

(마) ‘순사(巡査)와 찬미가(讚美歌)’ : 오헨리 작, 장영숙 역, 신동아 5:1, 1935. 1.1.

이 작품은 오헨리의 유명한 단편(“The Cop and Anthem”)을 번역한 것인데, 번역자 장영숙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없다.

(바) ‘로빈슨 무인절도 표류기(3)’ : 디포 작, 역자 미상, 한글 3:2-12, 1935. 2.1.

12) 이 작품은 원전을 확인하지 못했다.

13) 강원도 철원 출생으로 동경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국의 런던대학과 옥스포드대학에서 3년간 수학하고 귀국해서, 보성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다. 그 후 고위 관료를 역임하고 동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번역서로 『베니스의 상인』(1948)이 있으며, 일찍부터 셰익스피어 전집을 번역하기로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초기 영문학자로서, 특히 셰익스피어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은 영국의 문필가 디포(Daniel Defoe, 1660-1731)의 장편(*Robinson Crusoe*, 원제: *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of York*)을 번역한 것인데, 역자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¹⁴⁾

2. 3. 시대 배경

여기서 문학 번역과 관련하여 한국의 1920년대와 1930년대라는 시대가 갖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1920년대는 번역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서구 문학의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김현실 4)라고 할 수 있다.¹⁵⁾ 이는 이전 시기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서구 문학의 소개가 삼일 운동 이후에 실시된 일제의 문화 정책이라는 기회를 타서 급격하게 가시화된 상황¹⁶⁾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1920년대 번역 소설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영어 원전에 대한 최초의 번역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930년대는 김병철의 지적대로 우리 번역 문학의 ‘르네상스적 개화의 시기’(799)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전 시기에 짝이 튼 번역 문학이 정식으로 뿌리를 내린 시기가 바로 1930년대인데, 그것은 중역(重譯)의 감소와 원전 직접 번역의 증가라는 번역 태도의 변화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김병철에

14) 기본적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번역 작품은 영어권 원전의 번역에 한정해서 어휘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게 된다. 다만, 당시의 어휘 번역과 사용 양상에 대한 보충 자료로 다음과 같은 한문 원전의 번역본을 한 편 이용하기도 했다. ‘양귀비(楊貴妃)’ : 왕독청 작, 양백화 역, 『조선일보』, 1931.5.16-6. 13.

15) 김병철(1975)에서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번역문학사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1단계: 계몽적 작가들이 활동한 준비 시기(1895-1918)

2단계: 『태서문예신보』 이후 번역 문학의 각성 시기(1918-1925)

3단계: 궤도가 결정되고 활동이 본격화한 시기(1926-1935)

4단계: 암흑 시기(1936-1945)

5단계: 재생 시기(1946-1950)

16) 물론 이러한 상황의 저변에는 문학 의식의 진보라든가, 일본 유학생의 증가, 전반적인 교육 수준의 향상, 1925년을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한 신진 번역가의 출현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의하면, 단행본 21편 중에서 원어로부터 직접 번역된 것이 12편으로 전체 분량의 57%인데, 이는 1920년대의 20%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번역자의 면면을 보더라도, 앞선 시기에는 70% 가량이 선교사였는데, 이 시기는 우리 번역가의 비율(3/18)이 압도적으로 높았다(798-799).¹⁷⁾

요약하면, 1920년대의 번역 소설 자료를 통해서는 서양 문학 원전에 대한 우리 번역의 최초 반응 양상을 추론할 수 있고, 1930년대의 번역 소설 자료를 통해서는 비교적 성숙된 우리 번역 문학의 양상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3. 1920-1930년대 어휘 번역의 양상

3. 1. 번역 인프라의 취약성 - 한자어의 남용

이 시기의 번역 어휘를 검토해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한자(어)의 남용 현상이다.

- (1) 確實히 이 世界와는 달라서 異狀한 思想과 이상한 考察이 존재하다.
(상봉: 25)
- (2) 나는 이 逢遭의 때를 極히 紛亂한 記憶으로부터 생각해낸다. (상봉: 26)
- (3) 只今 그의 아름다운 외아들은 물속에 김히 잠겨서 어린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 젊은 母親의 甘味한 撫愛를 생각하고 照耀하게 母親의 이름을 불러 보려고 애타서 生命이 盡하였을 것이다. (상봉 26)
- (4) 不純潔한 色調는 잇서도 男子이면 누구든지 새로운 情緒의 戰慄
(상봉: 32)

위의 자료 (1)-(4)를 검토해 보면, 현재 우리말 어휘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자어의 용법과 사뭇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1)의 ‘考察’은

17) 초역과 의역이 줄어들고, 완역이 늘었다는 점도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찰(방)법’(사고방식) 정도가 자연스럽고, (2)의 ‘逢遭’는 ‘상봉’과 ‘조우’를 합쳐놓은 단어로 보이는데 국어사전에 글자 배열순서가 바뀐 ‘조봉’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3)의 ‘甘昧’와 ‘撫愛’ 역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甘昧¹⁸⁾, 배열순서가 바뀐 모습으로 등재되어 있다(撫愛 → 愛撫). (4)의 ‘不純潔(한)’은 ‘不潔(한)’이 일반적인 국어 어휘의 용법이다.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국어에서 한자어 어휘의 용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특히 다음과 같은 1음절 한자어의 용례에서는 비정상적 용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5) 넓은 마당의 큰 時計는 伊太利의 다섯時를 報하였다. (상봉 26)
- (6) 君은 나와 나의 僕 以外에, 神聖한 奧院에 들어오라는 許諾을 바든 唯一의 人間이다. (상봉 31)
- (7) 「원팔라- 팔십칠센트쓰」 그 中에두 六十센트쓰는 浬돈을 글거모아서 합한 額이다. (월자와 시계)
- (8) 나는 저가 輕함과 儼함을 뒤섞어서 찬찬히 이악이하는 ... 가슴속에 어떤 混亂과 戰慄과 신경적 激情이 원인을 모를대서 일어나서 숨은 것가 타야 무시무시하였다. (상봉 31)

위 (5)-(8)의 용례를 보면, 밑줄 그은 어휘가 모두 1음절 한자어(체언) 내지 1음절 한자어와 ‘-하다’의 결합형(용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단어는 1음절에 다른 요소가 덧붙여 2음절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안정적으로 국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때 덧붙는 요소는 다음의 용례에서 보듯이 한자어일 수도 있고 고유어일 수도 있다.

- (9) 健하다 → 强健하다(한자어 요소의 첨가)/ 굳健 하다(고유어 요소의 첨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5)는 ‘通報하다’ 내지 ‘豫報하다’가 자연스럽고¹⁹⁾, (6)

18) ‘甘昧하다’는 오늘날의 ‘감미롭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 듯하다.

은 ‘從僕’이 자연스러우며, (7)은 ‘金額’이 자연스럽고, (8)은 ‘輕薄’과 ‘嚴肅’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1음절 한자어가 국어에서 보이는 비문법성은 이미 「개역성서」(1937)와 「새번역 신약전서」(1967)를 대상으로 3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어휘 용법의 변화를 추적한 이정근(1976)에 상세하게 지적되어 있다.

(10.a) 체언²⁰⁾

옥(獄)→감옥, 성(城)→도성, 시(時)→시간, 세(稅)→세금, 복(福)→축복,
의(義)→정의, 신(信)→신의, 욕(辱)→모욕, 상(賞)→보상, 동(銅)→동전

(10.b) 용언

약(弱)하다→虛弱하다, 구(救)하다→救援하다, 악(惡)하다→간악하다,
행(行)하다→實行하다, 명(命)하다→命命하다, 노(怒)하다→憤怒하다,

이른 시기부터 국어에 들어와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산, 강, 책’ 등 소수의 단어 이외에 1음절 한자어가 국어에서 한정된 용법으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아래 용례를 검토해 보자.

(11.a) 남(男)과 여(女)

(11.b) 열(熱)과 성(誠)을 다해서 손님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11.c) 노(勞)와 사(使)가 하나 되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위 자료 (11)에서 (11.a)는 오래 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된 바 있는 프랑스 영화의 제목(*Un Homme et Une Femme*)이고, (11.b)는 우리가 음식점 등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표어이며, (11.c)는 연전에 매스컴에 등장했던 공익광고의 문안이다. 그런데 이들 용례의 특징은 두 1음절 한자어가 항상 대구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단어를 중간의 접속조사 없이 그대로 연결하면 정

19) 그래도 앞의 어구 ‘다섯時’와 어울리면 어색하다. ‘알리다’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0) 물론 아래 (10.a)의 용례 가운데도 현재 1음절로 사용되는 단어가 일부(옥, 성, 복, 욕) 있지만, 이들이 2음절로 확장되었을 때 의미와 형태의 안정성을 얻는 것은 분명하다.

상적인 2음절 한자어(男女, 熱誠, 勞使)로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들 용례는 특정 환경에서만 성립하는 특수한 용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이 시기의 어휘를 검토해 보면, 한자어 관용 표현이 잦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도 한자어 남용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용례를 검토해 보자.

- (12) 그러나 徒勞이었다. (상봉 26)
- (13) 무슨 理由가 거과 잇섯는지 그가 급히 저에게 作別을 고히할 때 그의 입에서 뜻없는 듯한 속새긴지 그러치 안호면 물결의 속새긴지 異狀한 低音의 말소리가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해가 올라와서 한 時間 後에 -- 우리는 만납시다--그릅시다!> 속새기는 것을 나는 其然가 未然가 하게 들었다. (상봉 28)
- (14) 독자 제군은 이것에 압서서의 된 일을 임의 아르섯지마는 당시의 나로서는 아모런 손 델 곳이 업슴으로 제백사가 모다 암중모색이었다. (백만방지폐 118)
- (15) 나는 무원려(無遠慮)하게 무려 보았다. (백만방지폐 2-82)
- (16) 그 뒤에 나는 사탕을 재배하여 불수년에 상당하게 재산을 이루었읍니다. (로빈슨 무인절도 표류기 29)

위 용례 (12)-(16)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한문 문어체의 단어나 구로 되어 있다. 우선 (12)는 ‘헛수고’의 한문 문어체 표현이고, (13)의 ‘其然가 未然가 하다’는 현대국어 ‘긴가민가하다’의 원형 표현이다. (14)의 ‘諸百事’는 한문 구(관형어+명사구[관형어+명사])로, ‘모든 일’ 정도가 자연스럽다.²¹⁾ (15)의 ‘無遠慮’도 전형적인 한문 문어체 구(존재사+명사구[관형어+명사])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혹은 ‘별 생각 없이’ 정도가 자연스럽다. (16)의 ‘不數年’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정도의 구이다.

이와 같은 한자어의 남용 현상은 당시의 우리 번역 역량이 아직 본격적으

21) 용례 (14)에서는 ‘암중모색’도 한문 문어체 표현이지만, 현대국어에서도 비교적 널리 사용되므로 자료에서 제외했다.

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결과인데, 그 원인은 한마디로 번역 인프라의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²²⁾

첫째, 제대로 된 영-한 사전의 부재이다.²³⁾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 사전은 1890년에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편집해서 출간한 「英韓字典」으로 알려져 있고, 해방 이후에는 1946년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영-한 사전이 간행되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1959년에 간행된 1366쪽짜리 「포켓英韓辭典」(이양하, 권중휘)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영-한 사전은 일본에서 나온 영-화(和=日) 사전의 직역본이었다고 한다(이재호 89). 이 과정에서 우리말의 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량의 일본 한자어가 유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위 작품이 번역되던 1920, 1930년대 당시에는 어휘 수가 풍부한 좋은 영한 사전이 없었던 셈이다.²⁴⁾ 특히 이재호(87)에 따르면, 1915년부터 1945년까지는 영어가 필요한 지식인들이 일본어를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영한 사전이 필요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둘째, 제대로 된 국어 사전의 부재이다.²⁵⁾ 이는 위에서 언급한 첫째 원인과도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사전을 역사적으로 개괄해 보면, 「조선어사전」(문세영 1938), 「조선말 큰사전」(조선어학회 1947), 「표준조선말사전」(김병제 1947)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자료가 1920-1930년대에 생성된 것이니만큼 국어 사전 편찬의 성과를 활용하지 못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번역 작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무엇보다 사전(A언어→B언어, B언어→A언어)인데, 당시의 번역 현장은 것처럼 기본적인 토대조차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의 번역자들이 원문의

22)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물론 ‘번역자의 언어 습관이나 일반인의 한자어 선호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익명의 심사자 지적)도 있다. 이는 넓게 보면 우리 국어가 아직 언문일치를 성취하지 못한 결과이고, 그런 언어 상황의 이면에는 언어 생활을 이끌어주는 믿을 만한 사전과 매체의 부재라는 원인이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3) 이하의 내용은 이재호(2000: 86-125)를 참고했다.

24) 19세기에 나온 초기 영한 사전 두 권의 쪽수는 각각 239, 345쪽이었다고 한다(이재호 87).

25) 이에 대해서는 이병근(15-49)을 참고할 수 있다.

어휘를 번역하면서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은 그래도 우리에게 친숙한 한자어 단어에 의지하는 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⁶⁾

3. 2. 문화 충격의 완충 작용 - 귀화 전략의 채택

문화 관련 어휘의 번역 전략에는 대체로 외국화(foreignization)와 귀화(naturalization/ domestication) 및 중립화(neutralization) 등 세 가지가 있다. 외국화는 출발언어 문화의 여러 측면을 지향하여, 언어 외적 특성과 언어 내적 특성을 모두 번역에 반영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자국화’라고도 하는 귀화는 도착언어 문화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번역에 반영하는 현지화 전략이다. 중립화는 양쪽 문화의 특성을 탈색시켜 핵심 정보만을 번역에 반영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상이한 번역 전략을 감안한 상태에서 1920-1930년대의 번역 어휘를 살펴보면, 우리는 당시의 번역가들이 귀화(자국화) 전략을 의도적으로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자료를 검토해 보자.

(17.a) 여보 오늘은 크리쓰마쓰의 전날밤이 아니우? (월자와 시계)

(17.b) 이런 살림사리료야 매일반이겠지만 짐에게 설빔을 사드리랴도 겨우 원팔라 팔십칠센트쓰. (월자와 시계)

(18.a) 코니! 아일랜드의 역사당패 갖다고 할 걸. (월자와 시계)

26) 당시의 번역 인프라가 취약했다고 해서 당시의 번역자들이 영한 사전을 참고하지 않고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의 국어 용법에 비추어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고, 한자어 자체의 용법도 정상적인 국어의 규칙에서 벗어난 어휘가 많이 눈에 뜨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용례에서 언급한 일부 한자어 어휘가 일본어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번역을 일본 번역의 중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익명의 심사자 지적). 현재의 필자로서는 이들 작품이 일본어 번역본의 중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만 필자는 2.2절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번역자의 간략한 이력에서 이들이 원문을 해당 언어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믿고 원전에서 직접 번역했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 부분 역시 본고의 한계로 인정한다.

- (18.b) 儂正 헨리 킹이 그 妻의 臨終에 外인 詠詞. (상봉 25)
- (18.c) 그 사람들과 함께 성갓치 싸이든 자기의 크다란 절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적사의 가면 45)
- (19.a) 청직이에게 인도를 바더서 호화로운 방안으로 드러갔다. (백만방지폐 113)
- (19.b) 쏘피가 카페에 발을 들여놓자 급사두목의 눈초리는 그 찢어진 바지와 떠러진 구두를 보고야 말았다. (순사와 찬미가 260)
- (19.c) 學費가 넉넉치 못했음으로 할수없이 當時 倫敦의 有名한 外科醫 페쓰氏의 學生이 되어 年間 지냈습니다. (소인국 37)
- (20.a) 부인의 젊은 손님들은 하숙비로 일주일에 칠원오십전을 지불하였다. (하박사 67)
- (20.b) 파톤 夫人과 結婚하게 되어 그가 가져온 돈 千兩을 手中에 너케 되었습니다. (소인국 37)
- (21.a) 원 넌장할. (도살자)
- (21.b) 우리가 여들달 반 가티 뵈니? (도살자)
- (22.a) 마누라 이걸 끌러바, 보면 처음 얼이 빠진 모양으로 서서 잇든 까닭을 알 수가 잇슬테니. (월자와 시계)
- (22.b) 꿈의 취미는 별스러웠다. (적사의 가면 48)
- (22.c) 앓가 紹介한 떼일러-닐에게 오-짐-하고 달너드러 끼어앵긴다. (월자와 시계)
- (22.d) 별 수 업시 小學校 作亂軍 道승님의 대가리뻘이 되었다. (월자와 시계)

우리에게 생소한 기독교의 축제일을 언급한 (17)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Christmas Eve)’가 ‘크리스마스 전날밤’으로, ‘새해 선물(New Year's present)’이 ‘설빔’으로 표현되고 있다. 역시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18)에서도 최대한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토속신앙(여사당

패)과 불교(승정, 절)에 관련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19)에서는 ‘청지기’, ‘급사두목’, ‘서생’ 등이 ‘스튜어드(steward)’, ‘매니저(manager)’와 ‘레지던트(resident)’ 등을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20)에서는 원어 사용국의 화폐 단위가 아닌 우리 화폐 단위가 나오고 있는데, (20.a)에 적용된 번역 전략은 완전한 귀화로 볼 수 있고 (20.b)는 귀화에 가까운 중립화²⁷⁾로 볼 수 있다. 육²⁸⁾과 하대 표현이 담긴 (21)에서는 완전한 귀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칭어와 지칭어 표현이 담긴 (22)를 검토해 보면, 여기서도 대명사 대신 사용된 일반 호칭어와 지칭어가 우리 문화에 익숙한 어휘임을 알 수 있다.²⁹⁾

이러한 현상은 외국 문화가 절대적으로 생소했던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 예컨대 종교나 호칭처럼 지나치게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를 외국화 전략 기법으로 번역해서 소개한다면, 모국어 독자들은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당시의 번역자는 이와 같은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문화 관련 어휘를 번역할 때 귀화(자국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번역 경향은 현대의 흐름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최근의 표본 조사³⁰⁾에 의하면, 피조사자들은 출발언어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경어의 생략, 이름과 호칭의 직역 양상이 ‘자연스럽다’고 응답했다고 한다(장민호 43). 이는 최근의 경향이 문화 관련 어휘의 번역에서 ‘귀화’가 아닌 ‘외국화’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관점을 달리하면, 이러한 차이는 우리 사회가 외국 문화에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이다.

27) 여기서 ‘兩’을 특정한 화폐 단위가 아니라 보통명사처럼 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동전 몇 푼’과 같은 어구에서 사용되는 ‘푼’과 유사한 용법이다.

28) ‘넨장할’은 ‘난장 맞을’에서 번져나온 말이며, ‘난장(亂杖)’은 수효를 세지 않고 때리는 때를 말한다. ‘젠장할’도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이다.

29) 위 (22.c)의 ‘님’은 원문 ‘Mr.’의 번역 어휘이다.

30) 이 조사는 수준급 어학 능력을 갖춘 통역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영문 소설의 한국어 번역판을 읽고 어색한 부분을 지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표본의 수효: 60명)

4. 1920-1930년대의 국어 어휘

4. 1. 의고적 어휘의 잔존과 서구 외래어 등장

이 시기의 번역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앞서 3.1에서 한자어의 남용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대략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언문일치 운동이 이 시기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시기 어휘의 특징으로는 이전 시대의 어휘가 다수 등장한 점, 곧 의고적 어휘의 잔존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어휘는 이후 현대 국어에서 거의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 (23) --그대가 現在 잇는 것 갖지는 안코, 이를테면 悽涼한 谿間과 그림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대가 잇섯슬 듯한, 卽 저 몽롱한 幻影의 市-별의 사랑을 밋는 極樂 아라지오식 宮殿의 넓은 門窓들이 沈默하는 바다의 이상한 모든 秘密의 운애, 또 그대가, 김흔, 쓴 意味의 눈끼를(눈길) 던지고 잇든 그대 自身の 베니스에서, 莊嚴한 冥想의 生涯를 보내고 잇든 그대의 모양이! (상봉 25)
- (24) 그 刹那 後에 저는 아즉 살아서 숨쉬는 小兒를 꼭 붓안고 대공작 부인 옆에 섰슬 때 물이 흠뻑 저저서 묵어운 저의 外套가 허부렁하게 끌려 저서 저의 발 앞에 뭉기었다. (상봉 28)
- (25) 여섯 점이 되여야 잠수실 수 잇습니다. (도살자)

위에서 (23)의 ‘우(에)’는 중세국어 ‘우측’을 연상시키는 어형으로 아직 ‘위’로 정착되지 않은 단계를 보여준다.³¹⁾ (24)의 ‘붓안고’는 ‘불안고’의 이표기로 보이는데, ‘불안다’ 자체가 현대국어에서 그다지 잘 사용되지 않는 어휘이다.³²⁾ 현대국어에서는 같은 의미로 ‘부둥켜안다’가 널리 사용된다. 이 합성동사는 동

31) 혹시 번역자의 평안 방언을 드러내는 어휘일 수도 있다. 지금도 북한의 문화어에서는 ‘우’가 사용되고 있다.

32) 국어 사전에 등재는 되어 있지만(‘어머니는 오랜 만에 만난 아들을 불안고 눈물을 질금질금 흘렸다’, 『표준국어대사전』), 이 단어는 중세국어의 화석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붙다’의 어간 ‘붙-’과 또 다른 동사 ‘안다’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처럼 동사 어간과 어간이 어미의 개재 없이 직접 결합되는 합성법은 중세국어에 특징적인 조어법으로 알려져 있다. (25)의 ‘여섯 점’은 물론 현대국어에서 ‘여섯 시’로 사용된다.

다음에 제시된 용례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도 감칠맛이 나는 어휘들이다.³³⁾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시기의 번역자들이 아무런 고민이 없이 한자어만을 번역 어휘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6) 紗帽布는 버스 듯한 그의 肉體를 겨우 살뺏히게 썼다. (상봉 27)
- (27) 생각할 틈도 업시 격구로 運河 가운데 뛰어들어서 숨바꿈질을 했다. (상봉 27)
- (28) 한 푼 두 푼 넌기고 가가(가게) 사람들에게는 입박게는 내지 안아도 저런 줄대이 마나님 바라 허는 눈치퉁을 먹어가면서 至毒하게 모흔 돈이다. (월자와 시계)
- (29) 사서 드리고 무엇이 보기에 훌륭하고 맵자하고 쓸모있슬가! (월자와 시계)
- (30) 이런 놈이야 대관절 怪狀스럽고 야살스럽지 여러분 (월자와 시계)
- (31) 세상에도 조롱적의 낫작을 해 가지고 이러케 씨까스른다. (백만방 120)
- (32) 그러케 느신하게 기다릴 수가 잇는가? (백만방 127)
- (33) 남새는 흐벽저도 숲과 넙킨은 얹팍하다는 집이다. (순사와 찬미가 260)
- (34) 얼골이 헛스그래하고 행색이 초초하고 허리가 굽고 몸집 작은 술떡쟁 이었다. (하박사 67)

(26)의 ‘살뺏히다’는 ‘실로 짜거나 엮은 것이 얹거나 성기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여기서도 ‘몸을 겨우 가릴 정도로 천을 두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27)의 ‘숨바꿈질’은 현대국어 ‘숨바꼭질’의 이전 시기 어형으로 추정되는데, 여

33) 이들 어휘가 (23)-(25)의 어휘와 다른 점은 아직 사어화(死語化)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기서는 ‘자맥질’의 뜻으로 쓰였지만 ‘자맥질’보다 훨씬 이해가 쉬운 고유어 어휘이다. (28)의 ‘줄दै이’는 ‘지위가 변변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크지 못하여 자질 구레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³⁴⁾로 현재 ‘줄때기’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눈치퉁(육)’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형태로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눈치밥’ 유형의 단어를 연상하면 우리말에서 가능한 조어로 생각된다. (29)의 ‘맵자하다’는 ‘모양이 제격에 어울려 맵시가 있다’는 뜻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다. (30)의 ‘야살스럽다’는 표준어로 ‘야살스럽다’인데 ‘알망곳고 되 바라진 데가 있다’는 뜻이다. (31)의 ‘씨까스르다’는 표준어로 ‘쓸까스르다’인데, ‘남을 추기었다 낮추었다 하여 비위 틀리게 놀리다’라는 뜻이다. (32)의 ‘느신하다’는 표준어 ‘느슨하다’인데, ‘마음이 풀어져 있다’는 뜻이다.³⁵⁾ (33)의 ‘호벽지다’는 ‘탐스럽게 두툼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지금도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34)는 ‘주정뱅이’를 뜻하는 단어로 보이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단어는 위 (24)에서 본 바와 같은 이전 시기 조어법의 흔적으로 볼 수도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깍쟁이’, ‘코쟁이’, ‘요술쟁이’ 등에서 보듯이 주로 명사 다음에 ‘-쟁이’가 붙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에서 보듯이 이 시기의 번역 어휘에도 이미 서구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한둘 눈에 띄이기 시작한다.

(35) 그건 띠너(저녁 정식)³⁶⁾예요. (도살자)

(36) 원편 볼때기가 단단한 페브먼트 위에 부닥쳤다. (순사와 찬미가 260)

4. 2. 국어 어휘 용법의 변화

이 시기의 어휘는 현대 국어와 비교해서 어휘의 적용 영역이라든가 통합관계 혹은 기본 의미의 용법 등에서 적잖은 차이를 보여준다. 다음의 용례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4) 이 단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사용된다.

35) ‘느긋하다’와 동의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6) 괄호 안에 우리말 어휘를 병기한 것을 보면 외래어 사용을 부담스러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7) 피 물드린 창경으로는 더욱 붉은 불빛치 흘러오는 까닭이다. (적사의 가면 49)

(38) 그때 그 물너가든 높은 베르벳트 담요 깔린 방 한쪽 구석에 도달하자 돌연이 방향을 변해서 따라가는 공에게 대항하였다. (적사의 가면 51)

(39.a) 그 사람이 싸움을 일으킨 것은 술취 나를 僞해 그런 게야. (양귀비)

(39.b) 이 愉快는 지금까지 술취 맛보지 못한 것이다. (양귀비)

(40) 그럴뿐 안이라 무엇이든지 쓸데있는 물건이면 아모 때이고 용달해 주 겠다, (백만방지패 116)

(41.a) 그러치만 내가 갖터 가서 관계치 안을가요? (백 2-82)

(41.b) 대단한 관계가 되겠지요. (백 2-82)

위 (37)-(40)의 어휘는 통합관계에서 현대 국어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37)의 후반부를 보면, ‘...는 까닭(이다)’로 되어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동일한 문맥에서 ‘...기 때문(이다)’처럼 통합되어 사용된다. (38)의 밑줄 그은 부분은 ‘방향을 변하다’라는 구문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방향이 변하다’ 내지 ‘방향을 바꾸다’처럼 사용된다. (39)에서는 ‘술취’가 긍정문(39.a)과 부정문(39.b)에 사용되고 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부정문에만 사용되는 부정 극어(negative polarity item)의 양상을 보인다.³⁷⁾ (40)의 ‘쓸데있다’도 현대 국어에서는 ‘쓸모 있다’ 혹은 ‘쓸데없다’로 사용된다. ‘관계’라는 명사가 구성성분으로 들어 있는 (41)도 역시 현대 국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괜찮을까요’(41.a)와 ‘관련성이 있다, 중요하다’(41.b) 정도로 사용된다. 다음의 용례는 현대 국어에서 다른 어휘로 대체되어 사용된다.

(42) 대체 우리를 갖고 어떻게 하실 모양입니까? (도살자)

37) ‘그 일은 전혀 네 소관이다’에서처럼 긍정문에 쓰이는 ‘전혀’도 발견되지만, 이것은 ‘전(專)혀’로 우리가 논의하는 형태와 다른 단어이다.

(43) 꼬박꼬박 주는 밥과 잠자리와 마음 맞는 동문들과 석달 동안을 지낸다
는 것은 소피가 응당 바랄만한 것일 것이다. (순사와 찬미가 259)

위 (42)는 ‘작정’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43)은 이념적인 문제로 ‘친구’라는 한자어로 대체되어 사용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간행된 신문과 잡지에 실린 번역 소설 14편을 대상으로, 번역문에 나타나는 번역 어휘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당시의 번역 어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한자어와 한문어구의 남용 현상이다. 이는 번역자에게 믿을 만한 영·한 사전이나 국어 사전이 빈약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특히 문화와 관련된 어휘의 경우에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자국화(귀화) 전략을 사용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당시가 서구 문화와 처음으로 접촉하는 시기였던 관계로, 독자들이 갖게 될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번역 어휘를 국어 어휘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전 시대에 사용되던 의고적 어휘가 적잖게 보이는 한편으로 서구에서 유입된 외래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어휘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의미 용법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당시의 번역 어휘는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병철. 1975. 『한국 근대 번역 문학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김정우. 1994. 『번역 문체의 역사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보고서).
김현실. 1981. 「1920년대 번역 미국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원영희. 2000. 「한글성경 번역상의 변화연구 - 등가성의 관점에서」. 『번역학 연구』 1:2. 89-110, 한국번역학회.
- 이병근. 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서울: 태학사.
- 이재호. 2000. 「영한 사전의 문제점」. 『국어문화학교 번역반 교재』. 86-125, 국립국어연구원.
- 이정근. 1976. 「성서 ‘새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김형규교수 정년기념논총』.
- 장민호. 2004. 「영화 번역 전략과 언어의 경제」. 『통번역교육연구』 2:2. 21-48,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_____. 2005. 「영화 번역에서의 유머효과의 감소」. 『통번역교육연구』 3:1. 45-56,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전현주. 2004. 「다중 체계 이론과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 『번역학 연구』 5:1. 167-182, 한국번역학회.

K C I

[Abstract]

**Korean Words in Novels Translated from English
in 1920s and 1930s**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has two main purposes: first, to review lexical entries from Korean translated novels during the period 1920-1930; second, to review those lexical entries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lexicolog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at's the most conspicuous trait is the abuse of Sino-Korean words or Chinese-origin phras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were neither English-Korean dictionaries nor Korean dictionaries mainly for translation. Second, in case of cultural terms, the translators at that time seemed to use so-called domestication strategy in a deliberate way. This policy could be esteemed to weaken the cultural shock originated from the readers' first intercourse with the Western institutions. Third, there appeared some words which had turned up largely before the 20th century. Fourth and last, we could conclude that those words have been changed gradually to the present forms since then.

▶Key Words: lexical viewpoint, novel, Korean translated words, domestication, foreignization, neutralization, cultural shock, relic forms, modern Korean period

김정우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kjwn@kyungnam.ac.kr

관심 분야: 번역이론, 번역사

논문투고일: 2006년 4월 25일

심사완료일: 2006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6년 6월 10일

KCS I